

재즈 보컬의 레퍼토리 편곡특성에 관한 연구 - 발라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pertoire Arrangement Characteristic of Jazz Vocal - Focused on the Ballads -

이 현 정*, 이 승 연**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

Hyun-Jung Lee*, Seungyon-Seny Lee**

The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 **

요약

재즈 연주자들이 음반에 많이 녹음한 재즈 스탠더드 곡을 대상으로 레퍼토리의 장르를 분류하여 선정된 곡을 중심으로 다른 버전의 편곡 특성을 연구한다. 레퍼토리 곡은 재즈 스탠더드 원곡에서 블루스, 스윙, 발라드, 비밥, 라틴의 5가지 장르로 분류되며, 대부분 발라드와 스윙이다. 레퍼토리의 곡 분류를 통해 같은 곡이 다른 버전에서 어떻게 다르게 연주되었는지 보기위해 여성 재즈보컬들에 의해 녹음된 음반을 중심으로 각 버전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여 각 여성 재즈 보컬들의 녹음된 곡에서 다른 버전의 편곡 특성을 도출한다.

I. 서론

재즈 연주자들이 공연이나 음반 녹음의 레퍼토리를 선정할 때 재즈 스탠더드 곡을 편곡하여 연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재즈 스탠더드 곡이 1920년부터 1940년까지의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스탠더드 곡의 목록이 정해지게 된 중요한 요인은 재즈 녹음에 의한 것이다. 재즈 스탠더드 곡은 재즈 입문자나 연주자에게 있어 재즈를 제대로 이해하고 연주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레퍼토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연구 범위 및 방법

재즈 보컬의 레퍼토리는 재즈 스탠더드 곡에서 알아보기 위해 연주자들의 음반에 많이 녹음된 순으로 정리해놓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Top 100 곡의 장르를 분류한다¹⁾. 장르는 재즈 스탠더드 악보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블루스, 스윙, 발라드, 비밥, 라틴의 5가지 장르로 분류되며, 대부분 발라드와 스윙이다.

이 논문에서는 발라드의 한 장르에서 음반이 많이 녹음된 순으로 6곡을 선정하였으며 보컬 없이 연주자만 녹음된 버전과 듀엣 혹은 다른 장르의 보컬이 녹음한 버전을 제외하고 한명의 재즈 보컬이 노래를 녹음한 버전만 분류한다²⁾. 보컬 버전의 분류는 재즈 보컬의 녹음이 많은 순으로 정리하여 곡의 순위가 바뀌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녹음된 'Summertime' 곡에서 편곡 특성을 연구한다. 편곡 특성은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를 보기위

해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활동시기를 두고 검증된 재즈 보컬리스트의 버전만 분석한다.

II. 본론

1. 장르 및 곡 분류

스탠더드 곡의 장르는 연주자들의 음반에 많이 녹음된 순으로 정리해놓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Top 100곡을 분류하였으며 발라드가 41곡, 스윙이 51곡으로 구성되어 다른 장르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Top 10 이내 발라드가 6곡 이상이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발라드의 한 장르만 다루어 곡을 분류한다.

Top 10 이내 선정된 발라드의 곡목은 'Body and Soul', 'Summertime', 'Round Midnight', 'I Can't Get Started (with You)', 'My Funny Valentine', 'Lover Man (Oh, Where Can You Be?)' 이며 총 6곡이다. 선정된 곡 중 재즈 보컬이 가장 많이 녹음한 곡은 'Summertime' 이며 이 곡에서 재즈보컬의 녹음 버전을 분류한다.

2. 'Summertime'의 녹음 버전 분류

'Summertime'의 원곡은 32마디 형식의 곡이며, 못갓춘마디로 시작하는 발라드 곡이다. 각 재즈보컬의 녹음 버전을 알아보기 위해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활동시기를 두고 검증된 여성 재즈 보컬의 음반을 분류한다.

음원을 찾을 수 없는 버전을 제외하고 총 8명의 보컬은 Billie Holiday, Carmen Mc Rae, Peggy Lee, Ella Fitzgerald, Lena Horne, Mildred Bailey, Peggy Lee, Sarah Vaughan, Shirley Horn이며 녹음한 버전은 20개이다.

3. 'Summertime'의 편곡 특성

악기편성은 Sarah Vaughan과 Ella Fitzgerald의 각 4개 버전과 Peggy Lee, Shirley Horn의 각 한 버전씩 소규모 편성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버전은 모두 빅밴드와 오케스트라의 편성으로 연주한다. 곡 형식 또한 빅밴드 혹은 오케스트라의 악기편성에 의해 유사하게 진행되고 여러 보컬의 버전에서 인트로, 인털루드, 아웃트로에 동일한 라인의 루프를 활용하였다. 또한 아웃트로에 변화를 주거나 헤드 중간에 템포는 유지하고 리듬만 변화를 주기도 한다. 피츠제럴드는 헤드 아웃에서 더블 타임으로 템포의 변화를 주는 편곡을 주로 사용하는데 라이브의 한 버전에서 발라드로 부른 후 더블타임으로 템포의 변화를 준다. 사라 본은 한 버전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라틴으로 편곡하여 색다른 느낌을 연주한다. 듀오와 트리오, 콰텟의 소규모 편성인 버전은 인트로, 악기 솔로, 연주 스타일 등 빅밴드가 성행하던 시대와는 다른 편곡의 특성을 보여준다.

III. 결론

이번 연구는 재즈 스탠더드의 장르를 분류하고 발라드에서 6곡을 선정하여 재즈 보컬의 녹음이 많은 순으로 레퍼토리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재즈 스탠더드의 전반적인 장르 분류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재즈 보컬의 레퍼토리는 발라드 장르의 6곡 이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방대한 양의 범위에서 레퍼토리를 분류한다면 연주자들의 음반을 포함한 레퍼토리와 순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곡 특성은 선정한 곡을 여성 재즈 보컬의 음반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시대를 한정하여 재즈 보컬의 연주 형태를 분석하였음에도 소규모 편성과 빅밴드 및 오케스트라의 악기편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빅밴드와 오케스트라의 버전은 전반적으로 편곡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이 유사한 형태로 연주되었지만 몇 개의 버전을 제외하고 템포와 리듬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라 본의 한 버전에선 다른 리듬을 사용한 편곡의 방향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악기 편성과 곡 형식에 드러나는 편곡적인 요소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보컬의 연주 형태와 스타일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Songs" jazzstandards.com, 2017, accessed April 3, 2018, <http://www.jazzstandards.com/compositions/index.htm>
- [2] Scott Yanow, The Jazz Singers: The Ultimate Guide, Backbeat Books, New York, 2008.